

일본의 휘발유수입 가능성과 영향 (하)

- 특석법폐지후 수입주체 · 시기 · 물량을 중심으로 -

- 日本長銀綜合研究所研究資料 -

II. 아시아 주요국의 석유제품가격과 코스트 경쟁력

특석법폐지후 석유제품중 수입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종이 휘발유이다. 석유정제원매사의 1993년 유기증권 보고서에서 산정한 일본의 휘발유코스트는 세후저유소 인도가격으로 86.8엔/ℓ인데 비해, 한국·싱가포르의 휘발유가 일본에 수입될 경우의 가격은 88년 무역통계 등을 참조하면 한국산은 약83~84엔/ℓ이고, 싱가포르산은 약 81~83엔/ℓ이다. 따라서 이들 두 국가의 휘발유는 일본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입에 따른 항만설비 등에 투자하는 자본이 크게 되면 이러한 경쟁력은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환율변동, 수출국의 사정·석유제품시황과 원유가격변동 가능성 때문에 수입휘발유의 가격경쟁력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1. 석유제품의 수출입가격

일본의 '93년 석유제품수입(CIF)가격을 보면, 휘발유유분은 한국산이 20.88엔/ℓ(한국에서의 수입량은 66만배럴, 이하동일)인데 비해, 싱가포르산은 19.47엔/ℓ(싱가포르에서의 수입량은 198만배럴, 이하동일)이다.¹⁾

<주 1> 본문중「유분」이라 함은 통계 품목의 명칭이 제품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분을 고려하여 분류했다.

또한 일본의 통계에서는「A중유」는 「중유」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경유」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중 일본수입가격에 서는「A중유」를 「중유」로 하고, 다른 국가의 통계는 「경유」로 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휘발유유분의 평균수입가격은 19.87엔/ℓ(총수입물량 398만B)이었다.²⁾

<주 2> 휘발유유분은 거의 휘발유기제인 리포메이트형태로 수입되고 있

고, 제품의 형태로 수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휘발유가격을 정확히 나타내지는 않으나 여기서는 참고가격으로 검토한다.

한편 나프타유분가격은 한국산이 13.29엔/ l (925만 B), 싱가포르산 13.84엔/ l (1,549만B)이었고, 등유·제트유유분은 각각 19.60엔/ l (176만B), 18.99엔/ l (1,066만B)이었다. 경유유분은 한국산이 18.97엔/ l (439만B), 싱가포르산이 16.90엔/ l (20만B), 중유유분은 각각 12.51엔/ l (448만B), 14.95엔/ l (386만B)이었다 (<표 2-1> 참조).

다음으로 '93년 한국 및 싱가포르의 석유제품 수출(FOB)가격을 보면, 휘발유유분은 한국 18.47엔/ l (대일본 수출물량 19만B)으로 거의가 리포메이트형태로 수출되었다. 한편 싱가포르의 고급휘발유의 현물시장 가격은 '93년 평균 16.79엔/ l 이었다.³⁾

<주 3> 싱가포르에서는 석유제품의 거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해 석유제품공급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제품의 현물마켓 가격을 수출(FOB)가격으로 이용했다. 그 때문에 싱가포르의 수출가격은 대일본 물량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의 가격을 보면 한국은('95. 2월 기준, 100원=12.5엔) 무연휘발유 공장도가격은 21.76엔/ l 이다. 그리고 '95년 2월 싱가포르의 고급휘발유가격은 (1\$=99.19엔)13.37엔/ l 으로, 가격하락과 엔고의 영

<참고> 일본의 유종별 석유제품 수입(CIF)가격 (1993년)

유종	가격 엔/ l	가격 US\$/bbl	수입량 1,000bbl
휘발유유분	19.87	28.41	3,975
나프타유분	13.71	19.61	140,389
계	13.88	19.85	144,364
등유·제트유분	19.38	27.72	35,367
경유유분	19.27	27.56	11,015
중유유분	14.12	20.19	36,915
연료유계	15.04	21.50	227,661

1US\$=111.20엔
<자료> 일본무역월표

향으로 '93년 대비 3엔/ l 가가이 떨어졌다. 이것을 한국의 공시가격과 비교하면 한국의 휘발유가 싱가포르 제품보다 1.6배 비싸다(<표 2-3> 참조).⁴⁾

<주 4> 한국산 휘발유와 싱가포르시장의 휘발유는 엄밀히 말하면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비교는 적당하지 않다.

다만 한국의 이 공시가격은 정유공장에서 인도되는 최고가격이기 때문에, 수출시 반드시 이 가격이 상한 가격으로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해도 이 가격을 밑도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정제능력증설은 국내수요와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에는 휘발유 수출능력을

<표 2-1> 일본의 국별 유종별 석유제품 수입가격(CIF, 1993)

한국				싱가포르			
유종	가격 엔/ l	가격 US\$/bbl	수입량 1,000bbl	유종	가격 엔/ l	가격 US\$/bbl	수입량 1,000bbl
휘발유유분	20.88	29.86	661	휘발유유분	19.47	27.84	1,979
나프타유분	13.29	19.00	9,245	나프타유분	13.84	19.79	15,494
계	13.79	19.72	9,906	계	14.48	20.70	17,474
등유·제트 유분	19.60	28.03	1,756	등유·제트 유분	18.99	27.16	10,662
경유유분	18.97	27.12	4,389	경유유분	16.90	24.16	200
중유유분	12.51	17.89	4,481	중유유분	14.95	21.38	3,856
연료유계	15.12	21.61	20,532	연료유계	16.05	22.94	32,192

1US\$=111.20엔
<자료> 일본무역월표

(표 2-2) 비교국별 유종별 석유제품수출(FOB)가격('93년)

한국				싱가포르(년간 평균현물시장가격)			
유종	가격 엔/ l	가격 US\$/bbl	수출량 1,000bbl	유종	가격 엔/ l	가격 US\$/bbl	비고
휘발유유분	18.47	26.40	192	휘발유	16.79	24.01	프리미엄
나프타유분	12.24	17.50	10,093	나프타	10.95	15.65	
계	12.35	17.66	10,285	등유	17.07	24.40	
제트유분	17.25	24.67	1,634	경유	16.78	24.00	유황분 0.3% 동3.5%
경유유분	17.24	24.66	6,076	중유	10.90	15.58	
중유유분	7.60	10.86	4,285	중유	8.06	11.52	

1US\$=111.20엔
<자료> 한국무역통계

1US\$=111.20엔
<자료> 석유가격통계집

(표 2-3) 한국·싱가포르의 유종별 석유제품가격('95. 2월 기준)

한국				싱가포르(현물시장)			
유종	가격 엔/ l	가격 won/ l	비고	유종	가격 엔/ l	가격 US\$/bbl	비고
휘발유	21.76	174.07	무연	휘발유	13.37	21.43	고급
등유	22.73	181.82		나프타	11.06	17.73	
경유(저)	19.60	156.82	유황분 0.2%	등유	14.20	22.76	
경유(고)	18.94	151.52	동 1.0%	경유	13.33	21.37	
B-C(저)	13.93	111.41	동 1.0%	중유	8.51	13.65	유황분 0.3% 동 3.5%
B-C(고)	11.66	93.26	동 4.0%	중유	9.82	15.73	

* 정유공장 세전인도가격 100won=12.5엔으로 환산
<자료> 유공

1US\$=99.19엔
<자료> 연료유지신문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수출여력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의 석유제품 표준국제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가격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 제품수출이 증가되면, 싱가포르제품과 경쟁을 통해 가격도 싱가포르 가격에 서서히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석유제품의 코스트 분석

1) 일본 휘발유의 코스트산정

일본 휘발유의 코스트는 유가증권보고서에 의해 추

정했고, 수입휘발유의 코스트추정은 '93년 가격을 근거로 산정했다. 따라서 코스트경쟁력 비교는 많은 추정과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석유회사들의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초하여 석유제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가격체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표 2-4> 참조). 여기서는 정제전업회사 2社の 평균과 정제원매 2社の 평균 수치를 사용했다. 또한 정제시 필요한 코스트는 모든 유종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간접비 등도 각 유종에 균등배분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들 회사의 판매가격을 정제회사의 경우 정유공장인도(원매사의 경우는 저유소 인도)가격으로 했다.

〈표 2-4〉 각사의 휘발유코스트 구조비교

(단위 : 엔/kl)

	정제회사 2사평균		원매회사 2사평균		4사평균		
	원유조달코스트(관세, 석유세포함)	14,724	11.9%	15,081	12.1%	14,902	12.0%
세전원유조달코스트	12,369	10.0%	12,726	10.2%	12,548	10.1%	
원유관세	315	0.3%	315	0.3%	315	0.3%	
석유세	2,040	1.6%	2,040	1.6%	2,040	1.6%	
정제코스트	3,599	2.9%	2,662	2.1%	3,130	2.5%	
판매관리비	992	0.8%	5,859	4.7%	3,426	2.8%	
순이익	4,208	3.4%	9,403	7.6%	6,805	5.5%	
정유공장인도 세전가격	<i>a</i>	23,522	18.9%	-	-	-	
저유소인도 세전가격	<i>a</i>	-	-	33,003	26.6%	-	
가솔린세(휘발유세 · 지방도로세)	<i>b</i>	53,800	43.3%	53,800	43.3%	53,800	43.3%
정유공장 인도가격	<i>a+b</i>	77,322	62.3%	-	-	-	
저유소 인도가격	<i>a+b</i>	-	-	86,803	69.9%	-	
주유소인도 평균가격	<i>c</i>	102,556	82.6%	102,556	82.6%	102,556	82.6%
원매주유소인도 총이익	<i>c-(a+b)</i>	-	-	15,753	12.7%	-	
주유소 평균판매가격	<i>d</i>	124,206	100.0%	124,206	100.0%	124,206	100.0%
주유소 총이익	<i>d-c</i>	-	-	21,650	-	-	
유통총이익(Gross-Margin)	<i>d-(a+b)</i>	-	-	37,403	-	-	

<자료> 석유각사의 '93년도 유가증권보고서, 석유제품판매 경영실태조사('94년판)에서 장은총합연구소 작성

정제회사의 정유공장인도 세전가격(여기서의 세금은 휘발유세 · 지방도로세 등의 가솔린세)이 23,522엔/kl, 원매사의 저유소인도 세전가격은 33,003엔/kl이다. 한편 비용면에서는 원유조달을 정제회사는 14,724엔/kl, 원매사는 15,081엔/kl로 구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원유관세(315엔/kl) · 석유세(2,040엔/kl)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제코스트는 정제회사가 3,599엔/kl · 원매사가 2,662엔/kl이고, 판매관리비는 정제회사가 992엔/kl, 원매사는 5,859엔/kl이며 이들 비용을 판매가격에서 차감한 순이익은 각각 4,208엔/kl, 9,403엔/kl가 된다. 위의 판매가격에다 가솔린세 53,800엔/kl를 더한 것이 정유공장인도(저유소인도) 세후 가격이 된다.

한편 전국석유협회의 석유제품판매업 경영실태조사('94년도)에 따르면 '93년도 휘발유 주유소평균가격은 124,206엔/kl이고, 주유소인도평균가격은 102,556

엔/kl이었다. 이 102,556엔/kl와 저유소인도 세후가격 86,803엔/kl차인 15,753엔/kl가 유통코스트+마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24,206엔/kl와 102,556엔/kl와의 차인 21,650엔/kl가 주유소 평균마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수입휘발유의 코스트산정과 일본 국산품과의 비교

다음으로 싱가포르 · 한국제품의 코스트와 일본이 이들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한 코스트를 '93년 수입 제품가격을 중심으로 시산한다. 지표가격은 <표 2-5>와 같은 가격으로 검토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휘발유수입형태는 일부 특수한 용도를 제외하고 리포메이트이다. 리포메이트는 석유제품으로는 보지않기 때문에, 수입시 관세와

석유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리포메이트가격을 석유제품가격으로 치환하여, 품질조정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업자에 의한 제품수입침입을 상정하고, 품질조정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했다. 이들 제품의 코스트경쟁력을 일본 국산품과 비교할 경우 전제는 <표 2-6>과 같다.

<표 2-5> 휘발유 코스트경쟁력 비교시 가격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정부의 국내유통용 무연휘발유 정유공장인도 세전공시가격 ② 대일본 리포메이트 수출(FOB) 가격 ③ 한국에서의 리포메이트 일본도착(CIF)가격 •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고급휘발유 연간평균시황 ⑤ 보통휘발유 수출(FOB)가격('93년 대일본 수출없음) ⑥ 싱가포르에서의 리포메이트 일본도착(CIF)가격 •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리포메이트의 일본도착 평균(CIF)가격

<표 2-6> 휘발유가격 경쟁력 비교시 전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임·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임은 방문조사를 통해 양국모두 1,000엔/키로 견적 • 보험료는 6~10엔/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시 2. 관세·석유세·가솔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제품관세(휘발유)가 1,430엔/키, 석유세는 2,040엔/키, 가솔린세 53,800엔/키(그중 휘발유세 48,600엔/키, 지방도로세 5,200엔/키)가 과세 3. 비축코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의 시산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비축이무달성시 비축코스트는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 2,800엔/키, 토지취득·항만등 受入시설등 신규건설시 8,200엔/키가 필요 4. 수입업자마진+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의 마진과 수입기지의 관리비는 3,000엔/키로 가정

<주> 신규집입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품질조정없이 유통이 가능한 품질수준의 제품을 수입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국에서는 이들 제품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공급량확보나 일본의 품질규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코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 따라 세후저유소인도가격으로 일본국산품과 수입제품을 비교했다. <표 2-5, 6>을 전제로 하면 원매사(평균)의 국산품가격은 86.8엔/ l 인 반면 한국제품은 ① 공시가격인 경우 97.6엔/ l 가 된다 (<표 2-7> 참조). ② 인 경우(반제품FOB가격) 82.5엔/ l, ③ 의 CIF가격은 84.0엔/ l 이다. ② 와 ③ 은 리포메이트이기 때문에 품질조정코스트가 들지만 (일본경제연구소 시산은 0.1엔/ l), 일본국산품보다도 조금 싸다.

또한 이 시산에 이용한 한국의 공시가격은 241.41 원/ l ('93년 현재)이나, '95년 2월 가격은 174.07 원/ l 까지 떨어졌다. 또한 환율은 '93년 100 원=13.9 엔에서 '95년 2월에는 100 원=12.5 엔까지 엔고가 되었다. 따라서 '95년 2월가격을 구하면, 85.8 엔/ l 가 되기 때문에 ① 에 의한 가격에서 12 엔/ l 정도 싸게 된다. 이 경우 공시가격에 의한 한국산 휘발유경우에도 일본국산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항만등 신규건설 등이 이루어질 경우, 비축코스트로 5.4 엔/ l 가 추가되어 8.2 엔/ l 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된다. 즉 한국산 휘발유는 환율이 엔저로 변화될 경우나, 수입에 따른 항만 등 설비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국산품과의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싱가포르제품은 ④ 의 시황에서 보면 80.9 엔/ l, ⑤ 의 보통휘발유 FOB가격은 78.9 엔/ l, ⑥ 의 리포메이트의 CIF가격으로 보면 82.5 엔/ l 가 된다. 리포메이트의 품질조정코스트를 고려한 경우에도 싱가포르제품도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가격(고급)은 '93년 평균 24.01 \$/B에서 '95년 4월 22.72 \$/B까지 5.4% 하락했다.

또한 환율은 '93년 평균 1 \$=111.20 엔에서 '95년 4월에는 1 \$=83.67 엔이 되었다. 환율과 제품가격을 '95년 4월의 단계에서 평가하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81.4 엔/ l 이다. 즉 싱가포르 제품은 일본국

〈표 2-7〉 일본국산휘발유와 수입휘발유가격 경쟁력 비교(시산)

(단위 : 원/리)

국산품 #1	정제회사 2리평균	정제원래 회사 2리평균	수입제품				상기포트 시항(93) 프레미엄	FOB(93) 리포메이트	CF(93) 리포메이트	FOB(93) 보통	OF(93) 리포메이트	참고#2 OF(93) 리포메이트
			수출국의 수출가격(FOB)	수출국시 가격(93) 무연	FOB(93)	CF(93)						
관세등 미포함 원유조달가격		12,369	16,792	18,466	20,883	17,792	15,838	19,467	14,838	19,603		
관세(원유)		315	1,000	1,000	1,430	1,430	1,430	1,430	1,000	1,430		
석유세		2,040	2,040	2,040	2,040	2,040	2,040	2,040	2,040	2,040		
관세등 포함 원유조달가격		14,724	38,026	22,936	24,353	21,262	19,308	22,937	(8,200)	23,073		
정제코스트		3,589	α	2,800	2,800	2,800	2,800	2,800	(8,200)	2,800		
판매관리비 등		992	β	(8,200)	(8,200)	(8,200)	(8,200)	(8,200)	(8,200)	(8,200)		
순이익		4,208										
정유공장세전인도가격		23,522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자유소세전인도가격		53,800	43,826	28,736	30,153	27,062	25,108	28,737	53,800	28,737		
정유공장세 후인도가격		77,322	53,800	53,800	53,800	53,800	53,800	53,800	53,800	53,800		
자유소세 후인도가격	A	86,803										
(참고) ※4												
유통코스트+마진	B(=C-A)	15,753										
주유소인도평균가격	C	102,556										
주유소평균 마진	D(=E-C)	21,650										
주유소평균 판매가격	E	124,206										
			α	97,626	82,536	83,953	80,862	78,908		82,537		
			b(=B)	15,753	15,753	15,753	15,753	15,753		15,753		

※ 1 국산품원은 자유소(α)세후인도가격(A)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코스트는 유가증권보고서에서 추정. 또한 주유소(η)인도 평균가격(C), 주유소평균판매가격(E)는 93년도 석유제품판매업 경영실적조사에 의함

※ 2 98년의 리포메이트의 일본도착(CF)평균가격에 의한 시산

※ 3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자료를 의한 것. 비축코스트(기준실비확정계이스) (α)는 비축용탱크 시설 및 항만확충정도의 설비투자자에 필요한 코스트, 비축코스트 (신규건설계이스) (β)는 용지의 취득(도시부), 항만의 신설에서 설비투자자를 하는 경우 필요한 코스트의 시산이다. 본표에서는 α와 β의 수치로 가격을 시산하고 있다.

※ 4 참고관의 수치

유통코스트+마진(B)=주유소(η)평균인도가격(C)-자유소(α)세후인도가격(A)

주유소평균가격(D)=주유소평균 판매가격(E)-주유소(η)인도평균가격(C)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과정에서는 국산품과 같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간주(0=B, d=D)

(시료) 장유출입연구소 작성

산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⑤의 보통휘발유는 '93년 대일본수출실적이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의 유통은 품질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정도에 머물 것이다.

다음으로 원유가격과 환율이 일본국산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93년 평균 원유CIF가격이 16.73\$/B에서, '95년 4월 18.71\$/B이 되었고 환율은 111.20엔/\$에서 83.67엔/\$로 엔고가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그동안 일본국산품의 원유조달가격은 엔화기준으로 1,854엔/kl 떨어졌다. 그러나 환율의 영향은 원유조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산품에 대한 것 보다도, 코스트전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수입제품이 크다. 즉 현재와 같이 환율이 엔고화될 경우의 영향은 해외의 휘발유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반대로 환율이 엔저될 경우 국산품의 경쟁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3) 향후 코스트변화 가능성

지금까지 코스트에 관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검토했다. 이들 코스트가 향후 변동될 요인으로는 첫째, 환율변동, 둘째, 수출국의 개별사정, 셋째, 아시아지역의 석유제품가격 또는 원유가격변동 등이다. 첫번째의 경우 현재와 같은 엔고추세에서 엔저로 변화되면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해도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정제·원매사도 원유조달 코스트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미치겠으나, 간접비 등은 환율의 영향으로 수입제품에 비하여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본 시산치(1\$=111.2엔)을 1\$=120엔으로 평가하면 싱가포르산 리포메이트 CIF가격은 엔화기준 1,544엔/kl 상승한다. 그 때문에 엔저로 인해 정제원매사의 세전원유조달코스트가 12,726(15,081-315-2,040)엔/kl에서 1,007엔 상승하는 것을 고려해도, 엔저가 되는 결과로 인해 수입제품과 국산품과의 가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번째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시가격이 상한가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격으로 수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고시가격자체도 폐지되고, 가격이 자유화되면 휘발유수출가격이 더욱 싸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에 대해서는 아시아지역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면 그 영향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걸프전쟁시에는 제품가격의 상승이 원유가격상승을 웃돌았다. 또한 일본의 제품수입이 해금되어 싱가포르시장에서 수입될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의 제품수요가 증가하여 시장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경우 수입휘발유의 코스트가 본 시산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4) 수입제품의 향후 전망

수입제품은 통상의 일본국산품의 구입가격보다도 어느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이 가격차를 이용한 형태로 제품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간거래가격과 비교한 경우, 이 가격의 우위성은 반드시 확보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고로 '93년 시간거래가격(京兵地區 로리단위)는 연초 91~93엔/l에서 연말 84~85엔/l로 떨어졌다(자료 : 석유가격통계집, 1994년판). 그리고 최근('95. 5월)은 약 81엔대로 추이하고 있다. 즉 반드시 수입제품이 가격우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입제품이 국산품에 비하여 이 정도밖에 경쟁력이 없는 경우 안정적인 경영을 목표로 하는 제품판매업자에게 있어 제품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수입제품을 이용하는 유인은 비교적 적을 것이다. 오히려 제품수입도 가능하다는 점을 비장의 카드로 이용해 국산품을 원매회사로부터 구입할 때에 가격교섭력을 증대시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단 석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때문에 휘발유의 시세하락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이미 특석법폐지를 대비하여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

한 움직임은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수입제품의 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제품이 경쟁력을 갖는 조건은 수출국이 염가판매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각국은 자국의 수효를 최우선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변동비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본 장에서 시산한 가격보다도 짝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말

이상과 같이 아시아지역 9개국의 석유제품수급과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정량적인 파악을 통하여 특석법폐지에 따른 일본석유산업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아시아지역의 석유제품수급은 수요급증으로 타이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에 휘발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싱가포르가 거론되고 있다. 이 두국가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으나 일본국산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수출가능성이 가장 큰 한국은 향후 대소비자인 중국에도 수출할 계획으로 있어 일본에 대한 안정공급이 반드시 보증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격면에서는 걸프전시와 같이 석유제품시황이 원유가격을 웃도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의 제품수입은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량 이상이 수입된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요소를 감안하여 향후 움직임을 주의깊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유통면에서 보면 특석법폐지는 석유회사 이외의 업자에게 제품수입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제품판매업자에게는



석유제품의 구입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석법폐지후 곧바로 석유제품을 대량 수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소량이나마 수입된 수입제품은 기존의 유통체계에 대한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수입제품의 도입은 기존의 유통체계에 변화를 끼치지 않을 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석유유통전체의 효율화로 연결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석유유통의 변화를 고려하면 석유제품의 국내 판매면에서의 변화요인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97년도 결정을 목표로 주유소셀프화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주유소의 셀프화는 특석법폐지에 따른 구입면에서의 경쟁요소에 이어, 판매면에서의 경쟁요소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판매코스트절감 뿐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메뉴의 확대가능성 때문에 가격인하와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석유는 국내에서 자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안정공급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 의미에서 석유심의회 석유정책 기본문제검토 소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안정공급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공급에도 노력하는 자세가 향후에도 요청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주유소 셀프화나, 주유소 지정지구제도의 단계적 철폐 등 향후에도 계속 석유산업에 대하여 규제완화가 진전될 것이나, 일본경제자체의 규제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특석법폐지후 석유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석유회회 조사과 제공>